



서울, 테마산책길 | 숲이 좋은 길 | 강북구

소나무 숲길 5

우이동 만남의광장

피톤치드 길

걷는구간 우이동 만남의광장 → 손병희 선생 묘소 → 소나무 숲길
→ 박음복자수박물관 → 솔밭근린공원

걷는거리 1.8km

소요시간 5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북한산 둘레길 1구간 '소나무 숲길'은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소나무를 볼 수 있어 '소나무 숲길'로 불린다. 이 길의 종착점인 솔밭근린 공원에는 무려 971그루 가량의 소나무가 모여 살고 있다. 이 길은 원래 동네 주민들이 산책 삼아 다니던 길이었다. 평탄하고 부드러운 흙길인데다 소나무들이 경쟁적으로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걸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우이동 만남의광장에서 출발하여 숲과 마을을 드나들며 길이 이어진다. 우이동 뒷산을 걷다 보면 어느새 주택가로 들어서고, 골목을 따라 내려오면 다시 산으로 들어간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된 길인데, 북한산을 상징하는 인수봉보다 북한산 아래에 늘어선 주택이 더 자주 눈에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송진 향이 온몸을 휘감으며 피톤치드를 흠뻑 뿌려준다.



천도교의 수도원인 봉황각 마당



소나무 숲길은 소나무를 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지만 도중에 손병희 선생 묘소와 봉황각을 둘러볼 수 있어 더욱 뜻깊다. 묘역은 길가에서 바로 보이는데 봉황각은 숲 안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 봉황각은 손병희 선생이 1912년에 세운 천도교의 교육기관으로 483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3·1운동을 구상한 곳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역사의 현장에서 잠깐 쉬어가는 것도 색다른 산책이 될 것이다.





박을복자수박물관

-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하차 후 120번 버스로 환승.
우이동 종점에서 내려서 도선사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만남의광장이 나온다.
- 02-901-6933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 이용시간 제한 없음
별도 주차장 시설 없음
화장실과 식수대는 만남의광장, 솔밭근린공원에 있음
애견 출입 불가능(국립공원 구간)

